

현장에세이

철길의 안전 지킴이

‘할수있다’는 신념과‘하면된다’는 의지를한데 모아세게다섯 번째로고속철도를 건설하고300km/℥ 고속열차를 운영하며 시간과 공간의혁명을이룩하고있는 사람들. 105년동안철길에 얹힌 국민의소중한추억은물론 미래통일 조국의 한반도종단 철도 및동북아물류 기지구축을위한 대륙횡단철도의 안전 지킴이직분을충실히 수행하고자마음까지다잡는 사람들….

어젯밤 찌는듯한 열대야 속에서 잠자리마저 뒤척이다 부은 눈으로 출근하여 처(妻)보다더 사랑해 온 철길에오늘도다시선다. 10년만에찾아온폭염속에서도지겹도록매미는목청껏노래를부르고, 철이른코스모스는 철길을 따라 흐드러지게 피어 어찌다 살짝 불어오는바람에어깨춤을추고있다.

저멀리에서애잔한기적을울리며달려오던고속열차는 여운만을남기고 눈감작할사이에 꼬리를 감추었다. 열차가 눈앞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철길을 애지중지 부어잡고희로애락을같이했던34년의기간이주마등같이 스쳐지나가며열차의여운처럼마음속에잔잔한그리움으로밀려온다.

현장에서돌아오는길에잠시들린역맛이방에는다정한연인과과아름다운가족들이삼삼오오짝을 지어설레는마음으로피서지로떠나는열차를기다리고 있다. 이런광경을목격할때면언제나 어린 나이에 철도와 인연을 맺기를 참잘했다는생각이든다. 새삼스레생각해보면필자가몸담고있는철도시설분야의4,80여 종사원들은 국토의 대동맥인 철길의 안전 지킴이자 주치의임이확실하다. 혹한의 눈보라치는 설악 준령(峻嶺)의 철길이나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혹서의 달구벌 분지의 철길에서, 고운 옷차려 입고떠나는귀성·귀경현장의철길이나, 재해나사고의최일선철길현장에서주황색안전조끼를차려입고구릿빛 피부에하얀이를드러내며불철주야 자신과가족의安危보다는 철길 안전을 우선하여언제나그곳에있는 사람들. 해마다두세차례씩은폭우를동반한태풍의영향으로전국곳곳에물난리가나고도로, 항공, 해운등이마비된 상태에서긴급복구를 위해 와류(渦流) 현상으로빚어진 노반세굴(洗掘)로공중에떠있는궤도사다리애몸을의지해수해현장으로접근을시도하는철길사수및철길복구특공대.

“이번 주말은 어렵지만 다음 주말에는 가족 여행이나 떠나자고,



이창호
철도청시설계획과장

올 여름에는 어렵지만 내년 여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꼭한번동해안으로피서여행을떠나자 꼬올해도또 가족들을 회유하는 사람들, 그리고 뻔히 알면서도 마음에상처를줄까봐또속아주는그가족들.

멀리서들려오는기적소리에웬지가슴을설레며혼자 말로 열차의 안전 운행을 중얼대는 사람들. 거칠어져가는 손바닥과 깊게패여가는 주름살을 철도 훈장이나계급장으로여기고굵은땀방울을웃소매로닦으며이일을 천직으로삼아말없이철길만바라보고사는사람들.

‘할 수 있다’는 신념과‘하면 된다’는 의지를 한데 모아세게다섯번째로고속철도를 건설하고300km/℥고속열차를 운영하며시간과공간의혁명을이룩하고있는사람들. 105년동안 철길에 얹힌 국민의 소중한 추억은 물론 미래 통일 조국의 한반도종단철도및동북아물류기지구축을위한대륙횡단철도의안전 지킴이직분을충실히수행하고자마음까지다잡는사람들….

그러나, 때로는좋은일곳은일함께하며아끼고존중하는동료와처자식을이땅에남겨두고그토록송고하게까지여기고지켜오던그철길에서먼저철도안전의 닢으로산화한동료의주검앞에비통한부르짖음을가슴으로삭이고다마르지않은눈가를손등으로 훔치며 다시 철길에서는 사람들, 제발저 높은 곳에 신이 있어 이철길을살펴보고계신다면다시는우리에게이런가슴아픈일이 없기를간절히빌어본다.

시기적으로어렵고, 힘들고, 더러운일을마다하는현 시대에국민들의생명과재산을안전하게수송하기위해투철한장인정신으로철길을유지보수하고안전을지키는우리는분명보통사람들이아닌 아주 특별한‘철길의 안전지킴이’이다. 멀리서또 기적을 울리며열차가다가올 때우리철도 시설분야종사원이 뿌린소중한땀방울은열차안전운행의아름다운꽃으로승화되어진향기를 발산하며국민들의결으로가까이다가갈것이다.㉸